

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세율을 올렸는데 세금이 준다, 래퍼 곡선(Laffer Curve)

원문 주소

<https://www.gklibrarykor.com/9612/>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세율을 올리면 나라 곳간이 넉넉해질 것 같습니다. 세금은 번 돈에 세율을 곱해 건으니, 세율이 두 배가 되면 세수도 두 배가 되어야 계산이 맞습니다. 그런데 정말 세율을 끝없이 올려도 세금이 계속 늘어날까요? 극단을 떠올려 보면 답이 보입니다. 세율이 0%라면 정부는 한 푼도 건지 못합니다. 반대로 세율이 100%라면 번 돈을 모두 빼앗기니 아무도 공식적으로 일하거나 소득을 신고하려 하지 않아 역시 건을 돈이 사라집니다. 두 끝에서 세수가 모두 0이라면 그 사이 어딘가에 세수가 가장 많아지는 세율이 있어야 합니다. 이 관계를 산 모양의 그래프로 그린 것이 바로 ‘래퍼 곡선(Laffer Curve)’입니다. 본 자료에서는 래퍼 곡선이 뱉킨 위에서 태어난 이야기부터 곡선이 그려지는 원리, 실제 정책에서 벌어진 일,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평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세율과 세수 사이의 산 모양 곡선 단순 소득세 모형의 개념도입니다. 100%에서 세수 0은 이 그림의 가정이며, 구간별 화살표는 그려진 곡선 안의 비교입니다. 실제 곡선과 최대점은 세목·국가·시기에 따라 다릅니다. 근거: Trabandt·Uhlig의 ECB 연구 · Saez·Slemrod·Giertz